

21세기 언론학과 언론학 교육의 향방

주제 발제: 김민환(고려대), 김영석(연세대), 양승목(서울대)

사 회: 차배근(서울대)

토 론: 강현두(서울대), 박명진(서울대), 박승관(서울대), 손병우(순천향대), 심재철(고려대), 윤영철(연세대), 윤석민(경원대), 임상원(고려대), 오인환(연세대), 최선열(이화여대), 최현철(고려대), 추광영(서울대), 홍석경(방송위원회)

발제 I: 言論學 교육의 방향에 대한 素見

발표자: 金珉煥(고려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1. 지식사회와 언론학

미국에서 처음으로 대학에 언론학과가 개설된 것은 자본주의가 정점으로 치달던 20세기 초였다. 그 후 언론학은 하나의 학문 분야로 자리를 잡으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기여해 왔다. 그동안 언론학 연구자들은 자본주의의 지배이념인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언론의 자유를 확고부동한 명제로 정착시키는데 기여했다.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은 투표 행태 연구, 선전 연구 등을 통해 의회주의의 발전과 여론정치에 공헌했다. 광고 연구자들은 효과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론과 모델을 개발하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현대 자본주의의 괄

*여기 수록된 글들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가 1996년 10월 23일 개최한 <현황과 쟁점> 1차 정기 세미나의 발제문 및 집단토론을 녹취, 정리한 것임.

목할만한 성장에 이바지했다. 이 밖에도 언론학 연구자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바는 크다.

이제 자본주의는 큰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드러키는 우리가 지금 전환 시대를 살고 있으며, 새로운 사회는 지식사회라고 규정할 바 있다. 새로운 사회에서 정보는 핵심적인 가치가 된다.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갖는 중요성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보는 누가 사회를 지배할 것인가를 결정할 뿐 아니라, 그 지배 방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규정할 것이라고도 한다.

시대에 따라 학문의 비중은 달라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학이 부상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지식사회에서 언론학은 가장 각광받는 학문 분야의 하나로 자리잡을 것이다. 바로 그런 징후를 우리는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자본주의 학문인 경영학은 응용학문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자본주의편에서 자본을 관리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자족했다. 지식사회에서 언론학도 그럴 개연성이 매우 크다. 이 분야의 학문적 위상이나 연구 업적의 축적 총량, 안목 등은 인접분야에 비해 왜소하다. 한 마디로 말해 그릇이 너무 적다. 지금 언론학은 정보사회의 중심 학문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그릇을 키워야 할 시점에서 있다. 이러한 때에 세계에서 신문방송학과를 가장 많이 거느린 나라 중의 하나인 이 나라에서 서울대가 중심이 되어 이런 모임을 갖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개화기나 일제하 신문의 사설을 읽는 일만으로 이 십년 가까운 시간을 보낸 사람이다. 주제에 대한 식견은 그저 상식적일 뿐이다. 나름대로 느낀 바를 소박하게 정리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아울러 발표자가 고려대 신문방송학과를 대표하지도 않으며, 이 내용 또한 학과의 의견을 집약한 것이 아니라 사견임을 밝혀둔다.

2. 언론학 교육의 새로운 지평

언젠가 관련 학회에서 KBS의 시청료를 어떻게 건을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 바 있다. 학회와 분과학회 등은 다투어 실용적인 주제로 세미나 등을 열고 있다. 그런 활동은 산학협동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며 언론학

의 기반 확보나 영향력 신장을 위해 불가피함을 인정한다. 그러나 언론학 관련 학회에서는 지나치게 실용적인 문제에 국한하여 너무 많은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반복되는 유사한 주제에 대하여 논의의 진전이 주목할만 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도 유의해야 한다. 실용적인 주제에 관심을 집중하는 상황에서 모두가 전문가언하지만 전문가다운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제 언론학 관련 학회와 학자들은 있는 구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에서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 새로운 사회에서 언론정보의 지배, 배분, 운용의 철학은 무엇이어야 하며, 그 체제와 정책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 그것을 위해 정부와 산업계 또는 학계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등등의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언론학 교육도 종전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 지금 새로운 세대는 의식의 지평을 확대하고 싶어도 그 길잡이가 많지 않다고 불평한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수요를 예측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인력을 흡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교육 체제의 확대 개편

새로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 체제를 확충해야 한다. 고려대에서는 신문방송학과를 언론대학으로 확대 개편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학과에서는 그 안을 본부에 냈다. 총장이 이를 적극 지원할 것임을 언론학회에 와서 공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려대에서 언론대학의 설립은 좌절되었다. 그 이유는 두가지이다. 하나는, 교육부에서 수도권 대학의 정원 증원에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교육부에서는 자체 정원 조정을 통해 단과대학을 창설하는 방안을 권고하였다고 하나 학내에서 다른 학과나 다른 단과대학의 정원을 끌어 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른 하나는 학과 내에서도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았다>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시기상조론이 대두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지금의 신문방송학과의 틀과 교육 내용이 새로운 상황, 새로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가? 본인의 소견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개편의 필요

성을 인정하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에도 동의한다. 원칙적으로 준비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신문방송학과가 출범할 때에 비교하면 어느 면에서 조건은 무르익을대로 익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문방송학과는 전공자도 거의 없이 개설되어 단시일에 인기학과로 부상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학계의 준비는 미흡했지만 사회의 수요는 잠재력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사회적 수요를 따지면 이미 단과대학이 열개 썬은 나와 있어야 한다. 사람은 흘러 넘친다. 가르칠 내용은 현 단계에서는 미흡하다. 그러나 그릇을 바꾸기만 하면 거기에 채울 내용이 충족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지금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단과대학으로 할 것인가, 학부제로 할 것인가, 학과를 어떻게 개편 또는 신설할 것인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등에 관한 적극적인 논의라고 생각한다. 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4. 개편의 방향

1) 그릇 키우기

늘 똑같은 실용적인 주제의 세미나가 성시를 이루는 이상 현상의 일인은 그릇이 작다는 데도 있다. 그릇을 키워야 담을 내용도 양적 질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그릇 키우기는 세 차원에서 모색해야 한다.

① 사회정보학으로의 위상 재정립

언론학은 저널리즘 교육으로 출발했다. 그 뒤에 정치학 사회학 사회심리학 등의 영향을 받아 커뮤니케이션학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식사회로의 이행을 고려할 때 커뮤니케이션학으로의 진전은 매우 다행한 것이었다. 이제 언론학은 한 걸음 나아가 사회정보학으로 위상을 다시 세워야 한다.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이나 <정보>라는 말을 쓰는 학과나 학회가 늘고 있는 현상을 주목해야 한다. 언론학의 위상을 재정립하지 않으면 언론학은 정보 관련학의 한 실용분야로 자족하고 다른 연관 분야가 위세를 떨치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② 단과대학 또는 학부로의 확대 개편

미국에서는 이미 언론학 교육을 단과대학 체제로 운용하는 학교가 많다. 우리 나라에서도 기존의 신문방송학과라는 울타리만으로는 새로운 수요를 수용하기에 역부족이다. 언론학은 사회정보학의 성격으로 개편하면서 아울러 그 그릇을 단과대학이나 학부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

고려대 신문방송학과와 <언론대학 설립안>에 따르면 개설 학과는 다음과 같다. 물론 이 안은 앞으로 구체화 과정에서 수정 보완을 요한다.

* 신문방송학과: 정원 50명. 신문과 방송을 통한 매스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연구하며,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신문·방송 전문 인력을 양성함. 교육과정은 신문과 방송의 발달사/ 신문과 방송의 사회적 효과/ 국가간의 커뮤니케이션/ 뉴미디어연구/ 신문과 방송분야의 실습 등으로 구성한다.

* 사회정보학과: 정원 50명. 사회정보학과는 미래의 정보관리인을 배출하는 학과로서 사회정보의 개념과 사회 정보 현상을 연구하며, 정보관리인을 양성한다. 교육과정은 정보사회론/ 정보이론/ 뉴미디어/ 국가통신정책/ 세계통신위성운영과 현황/ 사회정보산업론/ 정보운영론 등으로 구성한다.

* 광고홍보학과: 정원 50명. 광고홍보학과는 광고와 홍보현상에 대한 연구와 실무를 겸비하는 학과로서 국내의 광고와 홍보 분야에서 활동할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교육과정은 광고홍보론/ 국제광고/ 국제홍보/ 광고의 역사/ 광고실습/ 홍보실습/ 광고매체전략/ 국가홍보전략/ 정치광고론/ 광고와 대중문화 등으로 구성한다.

* 영상학과: 정원 50명. 영상학과는 미래의 영상분야와 사회의 관계를 연구하며, 영상제작실습을 통해서 영상분야의 실무자를 배출한다. 교육과정은 영상매체론/ 연구·영화의 역사/ 영상제작실습/ 영상산업론/ 사진실습 등으로 구성한다.

③ 대학원 교육의 강화

지금까지 언론학은 학부 중심 체제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저널리즘, 커뮤니케이션학 등 기존의 영역을 질적으로 심화하고 아울러 사회정보학으

로의 일대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대학원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확충해야 한다.

2) 이론과 실용의 조화

그러나 언론학(사회정보학)은 실용성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언론학이 사회학이나 심리학에 비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은 그 실용성의 덕이 크다.

① 산업은 교육 성장의 기반

학문이나 교육의 목표 중에 하나는 실용성이다. 산학 협동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학문이나 교육의 실용성을 구현하는 첩경이다. 또한 학문 연구의 물질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현존 언론 산업에 대한 연구 능력이나 영향력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

② 산업 인력의 수요 확장

이미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정보 산업 종사자가 산업 인구의 50%를 웃돌고 있다.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정보 관련 분야의 인력 수요는 급격히 팽창할 것이다. 우리 나라는 특히 민주화와 세계화 등의 요인이 겹쳐 관련 분야의 인력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당분간 그 경향을 지속될 것이다. 이를 외면하고 고고한 순수 학문 분야만을 지향할 수는 없다.

3) 실용 교육의 효율화

① 실험실습 시설의 확충

우리 나라에서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실용적인 주제에 매달리면서도 솔직히 말해 실용적인 교과목의 교육에 정통한 경우란 그리 흔치 않다. 사람도 없지만 시설은 더욱 부족하다.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관리운영비를 학교에서 내지 않아 효과적인 실기 교육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학이나 학과에서 실험실습 시설을 갖추고 실기 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 아마 그런 교육이 충실한 수준에 이를 때라야 국어 논문 상식으로 언론인을 선발하는 제도가 개선될 것이다.

시설은 학교에서 하되 그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신문방송학과 등록금은 인문사회계와 차등화해야 한다.

② 기존 산업인구의 재교육

연세대와 고려대 등에서는 언론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물론 소속 단과대학의 교수를 비롯한 많은 교수가 언론대학원에서 교육에 참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문방송학과가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다. 두 대학에서는 상당수 교수가 언론대학원의 행정에 참여하고 있고 그에 따른 부담도 매우 크다. 그러나 언론대학원의 석사과정, 연구과정 및 최고위과정은 존재 이유가 충분하다. 문제는 학문 연구나 일반대학원 교육에 전념하는 것이 더 적합한 교수 인력이 기존 언론인의 재교육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시간과 정열을 투입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러니까 언론대학원은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보다 운용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5. 현실적응의 지혜

단과대학으로의 확대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 학부제

각 대학이 신문방송학과를 단과대학으로 승격시키는 데는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따른다. 첫째 장애는 수도권 증원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학 자체의 정원 조정도 여의치 못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신문방송학과를 사회학과, 심리학과 등과 묶어 학부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부 내에서 학과의 장벽을 허물고 사회학과나 심리학과와 다수의 주요 과목을 계열 필수로 묶어 주며, 아울러 신문방송학과와 실습성 과목을 고학년에 집중 개설할 경우 관련 분야의 현실적인 이해관계는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2) 최소전공인정 학점제

연세대가 이미 최소전공인정 학점제를 실시하여 35학점 정도의 전공과목을 이수하면 4년 안에 두개 학과를 수료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고려대에서도 이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이런 경향은 교육 소비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부응한 것이어서 그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다. 우리 학과에서는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3) 복수전공의 기회 확대

고려대 신문방송학과에서는 복수전공제로 매년 30여명 가량을 받아 들이고 있다. 학과에서는 지금까지는 교육 여건의 악화, 분교 학생의 대량 유입 등을 우려하여 이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숫자는 제한하되(또는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치외교학과 영문과 사회학과 철학과 사학과 등 인접학과의 우수한 학생들을 적극 수용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도 있다.

4) 교수진 채용에 대한 새로운 발상

지금은 박사학위 소지자라야 교수에 임용될 수 있다. 서울에서 교수생활을 하려면 외국의 우수한 대학에서 학위를 영득한 자라야 한다. 학부는 신문방송학과 출신일수록 우선권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이제 교수의 자격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첫째, 언론학을 정보사회학으로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철학 등에서 탁월한 연구 업적이나 연구 능력을 보유한 자를 과감하게 맞아 들일 필요가 있다. 둘째, 실용 교육의 강화를 위해 실무 경력과 교육 능력을 겸비한 석사 수준의 교수 채용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6. 교과과목의 개선

현재 고려대 신문방송학과는 학부과정에 37개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교과목은 기초 전공이론 5개 과목¹⁾을 근간으로 하여, 사상과 역사 5개 과목²⁾, 기타 전공 15개 과목³⁾, 실습 12개 과목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매스컴원론, 신문론, 방송론, 광고 홍보론, 광고홍보론E

2) 세계언론사, 한국언론사, 언론사상과 제도, 비판이론, 언론의 자유와 책임

3) 대중문화론, 언론 윤리 법규, 거시커뮤니케이션론, 미시커뮤니케이션론, 조직

대학원은 기초 공통 8개 과목과 전공 30개 과목으로 개설과목은 모두 38개에 이른다.

* 학부

구분	교과목 이름
전공 필수	매스컴원론, 언론문장 연습, 신문론, 방송론
전공 선택	세계언론사, 대중문화론, 취재보도론, 언론 사상과 제도, 광고 홍보론, 광고 홍보론E, 언론 윤리 법규, 거시커뮤니케이션론, 미시커뮤니케이션론, 한국언론사, 조직커뮤니케이션론, 인쇄매체실습, 여론선전론, 현대미디어론, 비판이론, 언론문헌연구, 기획보도실습, 매스컴조사실습, 광고홍보실습, 방송실습1, 방송실습2, 언론의 자유와 책임, 조사보도론, 출판론, 국제커뮤니케이션론, 언론매체현장실습, 정보사회론, 매스미디어원강, 매스컴과 사회변동, 특수매체실습, 영상론, 보도사진실습, 매체산업론

* 대학원

구분	교과목 이름
기초 공통	커뮤니케이션이론 1, 커뮤니케이션이론 2, 커뮤니케이션 방법론 1, 커뮤니케이션방법론 2, 언론체제론, 언론윤리법제론, 매체발달사, 한국언론사, 전공 여론선전론, 국제커뮤니케이션론, 매체경영론, 조직커뮤니케이션론, 커뮤니케이션 전파이론, 비언어커뮤니케이션론, 매스컴과 대중문화, 매스컴과 사회변동, 신문세미나, 방송세미나, 광고이론, PR이론, 교육매체론, 뉴미디어론, 인간커뮤니케이션론, 설득커뮤니케이션론, 커뮤니케이션과 정치, PUBULIZISTIC, 제3세계 정보질서, 언론통제론, 신문특강, 방송특강, 광고특강, PR특강, 방법론 특강, 이론특강, 언론윤리론, 언론정책론, 신문학특수연습, 방송학특수연습

커뮤니케이션론, 여론선전론, 현대미디어론, 언론문헌연구, 국제커뮤니케이션론, 정보사회론, 매스미디어원강, 매스컴과 사회변동, 영상론, 매체산업론, 출판론

- 4) 언론문장연습, 취재보도론, 인쇄매체실습, 기획보도실습, 매스컴조사실습, 광고홍보실습, 방송실습1, 방송실습2, 조사보도론, 언론매체현장실습, 특수매체실습, 보도사진실습

차배근 교수는 언론학회 3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교과과정의 편성 원칙이 불분명하고 그 내용도 비체계적이며, 교수 위주로 편성하였고, 실무 교육이 빈약하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고려대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여기서 논외로 하되, 고려대 신문방송학과와 의과과정도 곧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교과과정 개편은 해당 학과를 단과대학 체제로 하느냐, 아니면 사회학과 등과 학부제로 하느냐, 다른 어떤 체제로 하느냐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단과대학 체제나 학부제를 시행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보사회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 그에 대한 전문성을 심화하는 과목을 신증설하고, 아울러 저학년에서 철학 사학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심리학 등 연관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수강을 적극 장려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강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7. 서울대와 타대학간의 분업-협업체제 구축

우리는 정부의 언론분야에 대한 기능을 흔히 규제의 기능, 조성의 기능, 조정의 기능, 참여의 기능 등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정부의 언론 분야에 대한 참여는 재원이 많이 들고 수익성은 불투명하여 사기업이 주체가 되기 어려운 분야에 한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지적된다.

대학에 대한 정부의 참여도 마찬가지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정부가 재원의 절대액을 지원하여 운영하는 서울대의 경우 대학원 중심체제로 개편하되 순수 학문 연구에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대신 연세대와 고려대는 학부의 비중, 실용 교육의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가 이런 분업을 통해 정보사회에 효과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세 대학은 학점 교류, 타 대학에서의 출강 허용, 타 대학 출강의 책임 강의의 시간 인정 등을 통해 협업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